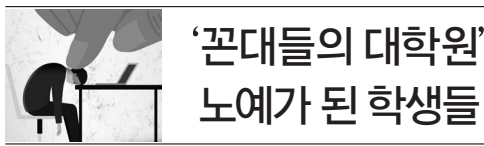


구조적 문제 아닌 개인 문제 치부...대학들 갑질 방관



‘꼰대들의 대학원’
노예가 된 학생들

<3> 바뀌지 않는 상아탑 왜

대학원생들의 갑질 피해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사회적 무관심으로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지난 7월 전남대 대학원생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국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가장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23년 1월 숭실대 박사연구생 A(24)씨가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다. A씨는 지도교수로부터 공개적으로 폭언을 듣고, 새벽에도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2017년에는 서울대에서 교수들이 대학원생에게 수만장의 논문과 서적 등 8만 페이지를 스캔하도록 강요했다는 ‘스캔 노예’ 사건이 불거졌다. 또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갑질 피해 신고 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3년 1건, 2024년 1건, 2025년 0건이었다. 조선대도 인권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간 대학원생이 갑질 피해를 신고한 건 1건에 불과하는 등 대학 전반이 비슷한 상황이다.

전남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B씨는 “최근 지도교수로부터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가스라이팅을 당해 논문 심사 받기를 거부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며 “교내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욕설이 들어가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게 아니라 피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대학원생의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부진해 전반적인 갑질 피해 현실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원생 연구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지막이며, 그 외에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애초 대학원생들의 현실에 대한 사회의 문제 인식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

스캔 노예·인분 교수 등 잇단 갑질...사회적 무관심에 법적 보호 미흡
인권센터 운영에도 도움 못 받아...대학측 “모든 대학 다 그래” 변명만

2015년에는 강남대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를 수년간 감금·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벌였다는 ‘인분 교수’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회적 무관심 때문에 현재까지도 대학원생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지도교수 또는 논문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업무 범위의 경우, 대학별 학칙 등으로 정해졌을 뿐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급 담당 교원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령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함돼 있지 않아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가 지난 2020년 국내 대학 최초로 ‘대학원생, 노동자, 성소수자 등 학내 구성원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인권헌장’을 제정하고자 한 적도 있으나, 교수 평의회 측에서 논의 절차를 밟지 않아 무산됐다.

대학 측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대학원생 사망 사고가 난 전남대에서도 최근 대학원생 갑질 피해에 대해 “우리 대학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모든 대학이 다 그렇다”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학 측이 피해 구제 창구라고 만든 대학 내 인권센터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학과별 구성원 수가 적어 신고자를 파악하기 쉬운 대학원 특성상 상담을 신청하기도, 피해를 신고하기도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남대는 지난 2016년부터 인권센터를 열고 갑질 피해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지만, 지난 7월 사망한 전남대 대학원생은 센터의 도움을 전혀 받지

다. 대학원생 관련 사건을 교수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구조적 문제를 떠나 교수 개인과 대학원생 간 문제로 사안을 축소해 보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전국대학원생노조 관계자는 “학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대학원생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교수에 종속된 대학원생의 문제, 교수 인식 문제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한 지점이다”고 지적했다.

대학원생이 처한 현실을 다룬 책 ‘한국에서 박사하기’ 저자인 이우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2015년 ‘인분 교수’ 사건이 벌어진 이후 대학원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별로 교원에 대한 징계나 견제 장치가 제각각인 등 구시대적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며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반영하고, 대학별로 들쭉날쭉한 인권 보장 제도들을 전국적으로 통합할 단단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구성원들이 대학원생이 처한 현실에 대해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맞춰 노동조합과 연대조직 등도 잇따라 출범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설립된 데 이어 2019년 ‘대학원생119’, 2020년 연대 조직 ‘연구자의 집’, 지난 8월 ‘연구자공제회’ 등이 출범했다.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는 대학원생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줄 수 있는 이들 단체의 목소리에 사회가 귀 기울여야 고질적인 갑질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동남아 취업 사기 주의보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 취업사기를 비롯해 감금피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일 광주시 북구청 민원실 모니터에 피해 관련 지역 여행이나 방문 시 주의 문구가 송출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올해 고수온 특보 역대 최장...남해는 저수온에 적조 피해

국립수산과학원 분석결과 발표

올해 여름 우리나라 해역에 역대 최장 기간 동안 고수온 특보가 내려졌던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전남 앞바다를 비롯한 남부 해역은 오히려 저수온 현상이 발생해 6년만에 적조 피해가 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재해 양상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수과원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 특보는 7월 9일부터 10월 1일까지 85일동안 유지됐다. 이는 지난해

(71일)에 비해 14일 늘어난 수치이며 역대 최장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근해 해역의 7~9월 평균 수온은 26.8~27.8도로 평년(23~26도)에 비해 2~4도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해의 경우 연안 수온이 22~30도를 나타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남해는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는 수온이 23.4도 안팎을 보여 전년(21.1도 안팎)보다 높았다. 8월 중순부터 수온이 21.2~24도로 떨어져 전년(25~27.3도)보다 낮았다.

수과원은 남부 해역에 정체전선이 자주 발달하면서 호우가 잇따라 내리고, 북태평양고기압 영향

권에 들어 남풍이 지속 유입되면서 냉수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수온이 낮아지면서 적조생물이 성장하기 좋은 24~27도의 수온을 유지했고, 영양염이 증가하고 경쟁생물이 줄어들어 6년 만에 적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수과원 설명이다.

수과원은 또 연안 수온이 급격히 변하면서 적조가 발생하는 패턴도 변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먼 바다에 적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연안에 적조가 발생하는 등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 쪽파 잎마름병 피해 확산...농가 출하 포기 잇따라

재배 면적 11% 150ha 피해

전남 쪽파 재배농가에서 잎마름병이 확산하면서 출하를 포기하는 농민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내 전체 쪽파 재배 면적 1287ha 중 11%에 달하는 150ha가 잎마름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농가들은 잎마름병에 걸려 상품성을 잃은 쪽파의 출하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 안양면의 한 농민들은 “30년 농사에 이런 피해는 처음”이라며 “평년보다 두 배 이상 방제했

지만 병 확산을 막지 못했고, 병든 쪽파를 베어내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잎마름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이날 농촌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장흥군 안양면의 쪽파 재배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가을장마와 고온다습한 기후로 작물 생육이 약화돼 병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 분석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근 벼 재배농가를 뒀던 깨 씨무늬병에 이어 쪽파를 비롯, 배추 등 노지채소 피해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전남도 차원에서 현황 조사와 정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대(진보·장흥1) 전남도의원은 “농민들이 어느해보다 농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가을장마로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고, 가을 기온이 격정될 정도다”며 “정부는 노지채소류 피해 조사와 농업재해 지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아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